HOT TREND VOL.11

폭행 부르는 스포일러, 에티켓이 필요하다

"타노스는 여전히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안소니 루소와 조 루소 형제 감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일러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왔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이어 두 번째 요청이다. 그만큼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대한 스포일러가 많다는 뜻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스포일러에 노출되기 전에 영화를 봐야 한다며 예매를 서두르기도 했다. 실제 홍콩의 한 영화관에서 한 남성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중요한 반전과 결말을 외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스포일러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스포일러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앞으로 스포일러는 어떻게 될까. 스포일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자. 글 이충환 동아에스앤씨 편집위원 cosmos89kr@naver.com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 ⓒMarvel Studios

스포일러는 네타바레, 영화헤살꾼

스포일러(Spoiler)란 영어로 망쳐 버리는 사람 또는 그 행위라는 뜻이다. 일 본어로는 '네타바레'라고 하는데,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뜻하는 속어 '네타' 와 들키다 또는 발각되다라는 뜻을 가진 '바레루'가 합쳐진 말이다.

결국 스포일러란 어떤 이야기에서 핵심 부분이 발각되는 행위를 해 망쳐 버리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스포일러를 대중문화사전에서 찾아보 면, 영화와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독자, 특 히 네티즌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돼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인터넷 투표에서는 '영화헤살꾼'이 순화 용어로 뽑혔다. 여기서 헤살이란 단어는 일을 짓궂게 훼방하는 짓이란 뜻이다. 하 지만 '내용 누설'이라고 표현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서사를 갖는 장르에서 줄거리는 긴장을 일으키는 중요 요소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다음 상황을 알 수 없을 때 관객이나 독자가 그 작품을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스포일러는 관객이나 독자가 기대했던, 영화 또는 소설에 대한 흥미를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포일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지난해 10월 9일 남극 서북쪽 킹조지섬에 위치한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연구기지에서 칼 부림이 일어났다. 한 엔지니어가 용접공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 로 가슴을 찔렀는데, 중상을 입은 동료는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엔지니어가 읽고 있던 추리소설의 결말과 범인의 정체를 폭로한 동료의 '스포일러'였다. 특별한 즐길 거리가 없는 남극기지에서 독서를 유일한 낙으로 삼았던 엔지니어가 동료의 스포일러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스포일러 역사는 19세기까지 올라가

스포일러는 디지털 세대 이전에도 존재했다. 영국 엑서터대학교 영문학 강 사 제임스 그린에 따르면 스포일러 역사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 대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도 소설을 읽을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 의식했다.

예를 들어 미스터리 소설의 조상격인 '흰 옷을 입은 여인'은 윌리엄 콜린스가 1859년에 수개월에 걸쳐 시리즈로 발표했다. 당시 소설은 보통 상류층에서 먼저 비싼 값에 읽힌 뒤, 대중에게 싼 가격에 재판매했다. 그런데 소설 흰 옷을 입은 여인은 결말을 두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나서서 비평가들에게 자기 소설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말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보통 줄거리를 누설해 버리던 1860년대 배경을 고려하면 대단히 드문 일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스포일러 공포가 소설에서 영화로 이어졌다. 좋은 예가 전설적인 영화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싸이코'다. 히치

42

콕 감독은 1960년 싸이코 개봉에 앞서 줄거리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마케팅을 할 때 스포일 러를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기본이고, 로 버트 플로크의 원작 소설을 최대한 사들이기까지 한 것이다. 한 광고에는 "결말을 누설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진 유일한 결말입니다"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영화 '스타워즈' 감독으로 유명한 조지 루커스도 스포 일러를 막고자 무단히 노력했다. 특히 영화 '스타워즈 에 피소드5 - 제국의 역습'에서 다스 베이더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장면 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애를 썼다. 당시 조감독을 통해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했던 마크 하밀에게 이 대사를 아무에 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스포일러란 단어가 인쇄매체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스포일러란 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서울극장 앞에서 벌어진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 대한 스포일러 사건이다. 극장 앞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이 큰 소리로 '절름발이가 범인이다!'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요즘에는 SNS가 대중화되면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져, 스포일러를 막기 위한 노력도 치열하다. 지난 4월 24일 개봉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결말에 대한 유출을 막기 위한 공방이 치열했다. 주연 배우에게도 전체 줄거리를 알려주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 전해주었다. 헐크 역을 맡은 배우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엔딩 장면을 5개쯤 찍었다는 말도 털어놓았다.

'진화심리학'으로 본 스포일러

스포일러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왜 그러는 걸까. 먼저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자. 많은 경우 스포일러 행위를 하면서 긍정적 정서, 즉 심리적 이득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이득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 스포일러 행위를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비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심리의 비밀을 풀려면 '진화심리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화는 수백만 년 전 인류 조상의 삶과 연 결된다. 인류 조상은 소규모 집단으로 야생 상태에서 살 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모든 것을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이 권력을 누렸다.

누군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걸 알면,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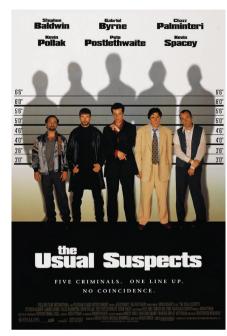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이고, 그는 집단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보를 선점하고 퍼뜨리는 행위를 우리 유전자에서는 집단에서 서열이 높아질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이를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느끼는 것이다.

스포일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영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퍼뜨리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스포일러 행위를 할 때 자연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데, 그 이면에는 집단에서 서열이 높아지려는 진화 역사가 숨어 있다. 사회적 서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자존감 문제와 연결된다. 평소 자존감이 낮은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스포일러 활동을 할확률이 높다.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 수치를 비교해 보면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자존감 수치가 낮을 것이라는 뜻이다.





- 1 영화 '싸이코'를 제작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BBC
- 2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5 제국의 역습'의 한 장면. ©Lucas Film/Disney





(왼쪽)스포일러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영화인 '유주얼 서스펙트' 포스터. ⓒGramercy Pictures

5G 기술을 이용해 한 발 빠르게 전하는 야구중계. ⓒSK텔레콤/Youtube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스포일러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면서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스포일러도 진화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통신망 속도가 최대 20배나 빨라서 다양한 각도의 영상, 세부 데이터까지 전해줄 수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에서 모바일 전송기술을 활용해 한 발 빠른 중계 서비스도 가능하다. 즉 다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보다 몇 초 빠른 프로야구 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선보인 5세대 이동통신 관련 광고 중 하나를 보면, 부장님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야구 중계를 몇 초 미리 파악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광고에서 부장님은 '야구의 신'으로 추앙받지만, 실제로는 스포일러 행위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이전 기술을 사용한다면 정보를 남들보다 늦게 받아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정 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단순하게 자랑 삼아 스포일러 행위를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이해관 계가 관련된 불법 행위, 예를 들어 도박을 한다면 큰 문제 가 될 수 있다.

사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글로 적어 공개하는 스포일 러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형시상 스포일러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으며,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스포일러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는 허 위사실을 유포할 때 성립하므로 스포일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단순히 결말만 미리 말해주는 식의 글로 스포일 러 행위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스포일러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정보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포일러 행위를 피하는 에 티켓이 필요한 셈이다.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스포일러 행위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별 이득이 없다. 순간적 희열은 조금 느낄 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올려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에도 사실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맞게 지켜야할 에티켓도 꼭 챙기는 것이좋겠다.

44